

금리 빠르게 오른다... 은행 대출 금리 하단 4%대로

변동금리 이어 고정금리도 7% 육박...4%대 은행 정기에금 한달새 두 배 5대은행 가계대출 19일까지 3.4조 ↑ ...2021년 10월 이후 최대 증가폭 고금리 당분간 유지될 듯...금융권, 가계대출 억제 위해 추가 인상 검토

미국 국제 금리가 긴축 장기화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 달 전 3%대였던 주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 하단이 4%대로 올라섰고, 상당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어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등까지 7%대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까지 겹쳐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4대은행 주택담보대출 0.34%포인트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40~6.725% 수준이다.

약 한 달 전 9월 22일(연 3.900~6.490%)과 비교해 하단이 0.340%포인트 뛰면서 4%대로 올라섰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620~6.620%)도 한 달 만에 상·하단이 모두 0.060%포인트씩 올랐다.

같은 기간 두 금리가 주로 지표로 삼는 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270%포인트(4.471→4.741%), 0.060%포인트(4.048→4.108%) 상승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은행채 등 시장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제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550~7.143%) 역시 상당과 하단이 각 0.280%, 0.044%포인트 높아졌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상승분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변동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PIX)가 석 달 만에 0.160%포인트(신규취급액 기준 3.660→3.820%)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시장금리가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모두를 밀어 올리면서, 하단의 3%대 금리는 사라지고 고정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까지 6%대 후반으로 7%대에 바짝 다가선 셈이다.

◇4%대 은행 정기에금 상품, 한달새 두 배로=지난 4월 기준금리(3.50%)조차 밑돌았던 은행들의 정기에금 금리도 대부분 최근 4%대를 회복했다.

시장금리가 뛰는 데다, 은행들로서는 지난해 하

반기 연 5%대 높은 금리로 받아 놓은 정기에금들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유치하려면 스스로 금리를 올려야 할 입장이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 경색이 심했던 지난 10월 이후 고금리로 힘겹게 끌어모은 정기에금의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현재 19개 은행의 정기에금 상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가 4.00%를 넘는 것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프예금'(4.35%), 전북은행 'JB 123정기에금'(4.30%), DGB대구은행 'DGB주거대출우대예금'(4.25%), Sh수협은행 '헤이 정기에금'(4.15%),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4.13%), 제주은행 'J정기에금'(4.10%),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4.05%), 신한은행 '솔편한 정기에금'(4.05%) 등 20개에 이른다.

지난달 24일 같은 포털에公示된 4%대 정기에금 상품 수(10개)와 비교해 불과 약 한 달 사이 4% 이상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 정기에금이 두 배로 늘었다.

하지만 이처럼 가파른 금리 상승과 추가 인상 전망과 상관없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 7321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3조 4027억원이나 더 늘었다.

이달 들어 약 20일 만의 증가 규모가 이미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6814억원(517조8588억원→520조5402억원) 늘었고, 지난달 1조762억원 줄었던 신용대출도 이달에는 8871억원 반등했다.

만약 이 추세대로 10월 전체 신용대출이 9월보다 늘어날 경우,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첫 증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집주인 빛·세금 체납 반드시 설명해야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전세피해 방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제·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서식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

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연내 이 체크 리스트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제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

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새로 만들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재 임차인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 협회와 조율해 개편 서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3년 이상 '빈둥대는' 청년 니트족 8만명 달해

취업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안 받아...청년 무직자는 21만8천명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000명이었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은 8만명으로 36.7%를 차지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10명 중 4명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시험 준비, 구직활동, 육아나 가사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니트족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니트족 비율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3.9%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7.3%로 상승했다. 다시 1년 이상~2년 미만 19.2%, 2년 이상~3년 미만 21.1%로 줄어든 뒤 3년 이상일 때 36.7%로 대폭 높아졌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취업을 포기하

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 비중을 보면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53.0%, 1~2년 미만일 때 58.2% 등으로 50%대를 기록하다가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36.5%로 뚝 떨어졌다.

여기서 취업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취업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비율 등을 합친 것이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가운데 니트족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니트족 비율은 5월 기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8년 24.0%에서 2019년 24.7%, 2020년 25.5%로 20%대에 머무르다가 2021년 34.7%로 대폭 상승한 뒤 지난해 37.4%까지 높아졌다.

사람 수로 보면 장기 니트족은 2021년 9만6000명에서 지난해 8만4000명, 올해 8만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2018년(6만4000명)과 2019년(6만4000명)보다는 많았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장기 니트족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연합뉴스



'2023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 드림청년 멘토특강에 참여한 광주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광주경총, 청년 일경험드림+사업 멘토 특강

광주경총·자치총회(회장 양진석·최호원 회장)는 최근 '2023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기업형'에 참여하고 드림청년 120명 대상으로 멘토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 청년들은 전일빌딩245 도슨트 투어를 했다. 이후 문화기획·디자인 관련 직무, 경영·교육·보건 관련 직무, 기계·전기전자·IT 관련

직무로 나뉘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와 선배를 초빙해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주경총은 앞서 드림청년 대상 요구조사에서 '정보수집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정보수집과 탐색의 기회를 갖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멘토 특강에 참여했던 박이슬씨는 "관리자로서의 채용 기준 및 관점, 지원자로서의 취업준비 과

정과 전반적인 회사 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일경험+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광주시가 주관해 지역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다. 2017년 시작돼 현재까지 6460명의 청년들이 4252개 회사에서 일 경험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김차냉장고 더 좋아졌어요 삼성전자 모델이 맞춤 보관 기능을 강화한 김차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초미세정온 기술과 '메탈 쿨링' 기술이 적용, 총 23개의 맞춤 보관 모드가 탑재됐다. 4도어·3도어·1도어·뚜껑형 등 총 75종으로 운영되며, 기능과 도어 패널 사양에 따라 가격은 239만9000원에서 599만9000원 선이다. <삼성전자 제공>

지방소멸시대 생존 전략

한은, 31일 무료 금융경제강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홍철)는 오는 3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 2회차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좌는 오후 3시 시작하며, 각종 매체에 다수 출연 중인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시대의 지역경제 생존전략'을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문제', '향후 광주전남 지역경제 및 부동산 전망'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진행하며 강좌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09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19	21	29	40	45	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86,494,614	11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9,718,638	88
3	5개 숫자일치					1,492,747	2,931
4	4개 숫자일치					50,000	143,714
5	3개 숫자일치					5,000	2,398,962

해양에너지, 국내 도시가스업계 첫 'GRESB'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ESG 성과 평가 '3Star' 획득

㈜해양에너지 22일 국내 도시가스 업계 최초로 'GRESB'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는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ESG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하는 국제기관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ESG 목표 설정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목표 설정 여부,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이

있다. 해양에너지는 'GRESB 2023'에서 88점(100점 만점, 평균 83점) 및 '3Star'를 획득했다.

국내 도시가스 업계 가운데 GRESB 인증을 획득한 건 ㈜해양에너지가 처음이다.

특히 해양에너지는 지난 2021년 10월 'ESG 위원회'를 출범하고, 기관·학계·시민단체·법조계·언론 등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회공헌활동 심의·의결을 진행

하고 있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GRESB 평가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ESG 실태를 점검 할 수 있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ESG 실행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착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